

읍·면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 투표자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김중권 (琿重權)	장소택 (張蘇宅)	이학원 (李學源)	박만순 (朴萬淳)	이동일 (李東一)				
온정면	2,929	2,379	1,060	49	1,097	48	82	2,336	43	550	61.2
죽변면	6,030	4,546	1,521	235	2,617	44	81	4,498	48	1,484	75.4
후포면	7,906	5,746	2,104	116	2,890	326	243	5,679	67	2,160	72.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본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김중권 후보가 낙선하고 통일국민당의 이학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김중권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원전 반대 투쟁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민심이 이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인사들의 출마 포기과 이학원 후보로의 단일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학원 의원은 당선 후 민자당에 입당하였으나 재산 등록 문제로 민자당에서 제명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가 다시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등의 잦은 당적 변동을 겪었다. 전반기에는 농수산위원회에, 후반기에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당면 농정을 질의하였으며 ‘환경농업융성법안’을 발의하였다. 출향 인사로 근남면 출신의 류승규 후보가 강원도 태백시에서 민자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그 후, 민자당 강원도지부장을 지내었다. 또한, 울진읍 출신의 최두환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7절 제6공화국(김영삼 정부)

제14대 대통령선거는 문민 후보들 간의 대결로 치러지며 미약하나마 우리나라 현대사의 굴곡을 청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3·4공화국의 공화당과 5·6공화국의 민정당 등이 30여 년간 이어온 집권 세력의 맥이 14대 대선으로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남으로써 선거 때마다 이어진 정통성의 시비가 사라지게 되었다.

14대 총선 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4월 7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14대 총선 낙선자 면담 시, 철저한 자유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을 강조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자유 경선이 벌어졌다. 그러나 당내 반(反)김영삼을 대표하여 경선에 출마한 이종찬 의원이 경선의 불공정성

을 이유로 경선을 거부하였다. 당내 소수 계파의 수장으로 여러 면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던 김영삼 총재는 우여곡절 속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또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는 5월 27일, 민주당 후보선출대회에서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었다.

재벌 정당의 출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경제회생과 저가 주택보급이라는 기대를 함께 받아오던 통일국민당은 5월 15일에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정주영 대표를 선출하였다. 또한,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이종찬 후보가 경선 포기 선언한 뒤 8월 17일에 민자당을 탈당하였으며 민주당을 탈당한 한영수 의원과 함께 신당으로 새한국당을 결성하였으며, 11월 17일에 창당대회를 열고 이종찬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재벌 정당의 출현과 재벌 후보의 등장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큰 이슈였는데, 현대그룹을 모태로 한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김영삼·김대중 대결의 한 변수로 작용하여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금권 선거에 대한 공방은 관권 선거의 공방으로 계속 이어졌으며, 선거전 내내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또한, 지역감정은 각 정당의 선거 전략 또는 이해관계와 맞물려 한국 정치의 큰 해결 과제로 남았다.

11월 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3개의 선거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현승중 국무총리는 11월 9일, 사전선거 운동 중지를 촉구하고 경고 서한을 발송하였다. 11월 10일, 정부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을 12월 18일로 확정 및 고시하였다. 11월 25일 후보 등록 결과, 상기한 4명의 후보 이외에 신정치개혁당의 박찬중 후보와 무소속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후보가 각각 등록하였다.

총 유권자 29,422,658명 가운데 투표참여자는 24,095,170명으로, 총 81.9%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9,977,332표[득표율 42.0%]를 얻어 차점자인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8,041,284표[득표율 33.8%]를 1백 93만 표 차이로 앞서면서 당선되었다. 3위는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로 3,880,067표[득표율 16.3%]를 얻었으며, 4위는 신정당의 박찬중 후보로 1,516,047표[득표율 6.4%]를 얻었다. 무효표는 319,761표로 나타났다.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및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상황은 <표 86>, <표 87>과 같다.

<표 86> 제14대 대통령선거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29,422,658	23,775,409	319,761	24,095,170	5,327,488	81.9	98.7
경북	1,934,544	1,531,637	27,842	1,559,479	375,065	78.5	98.2
울진군	47,576	36,688	706	37,394	10,182	78.6	98.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87>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별자별 득표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민자당	민주당	통일 국민당	신정당	대한 정의당	무소속	무소속	계
	김영삼 (金泳三)	김대중 (金大中)	정주영 (鄭周永)	박찬중 (朴燦鍾)	이병호 (李丙昊)	김옥선 (金玉仙)	백기완 (白基玩)	
전국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35,739	86,292	238,648	23,775,409
강원	991,424	147,424	240,646	124,858	3,365	6,240	17,664	1,531,621
울진군	25,391	3,019	5,844	1,778	118	170	368	36,68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국회는 각 선거마다 별도로 되어있던 선거 관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하나의 선거법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선거 때마다 난무하던 부정·부패·타락 선거에 염증을 느끼고 깨끗한 선거에로의 열망이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반성이자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여·야의 협상에 의한 것이었다.

새로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하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최초로 치러졌으며, 이때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직선은 1961년에 중단된 이래 34년 만에 부활하였다. 또한, 그 결과,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자당이 참패하여 15개의 시·도지사 가운데 5개만 차지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총유권자 31,048,373명 중 21,237,449명이 투표하여 68.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경상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총유권자 1,926,274명 중 1,478,373명이 투표하여 76.7%의 투표율을 나타내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민주자유당의 이의근 후보, 자유민주연합의 박준홍 후보, 무소속 이판석 후보로 3명이었다. 이의근 후보와 이판석 후보는 전직 지사이자 고교 및 대학 선후배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박준홍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조카로, 때마침 일기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추모 열기에 힘입어 선전할 수 있었다. 당시 선거 결과, 이의근 후보가 541,535표로 당선되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 및 울진군수 선거 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표 88>~<표 90>과 같다. 울진군수 선거에는 총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며, 총유권자 50,026명 가운데 39,53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9.02%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자유당의 전광순 후보가 13,674표로 울진군수에 당선되었다.

<표 88> 울진군수 선거 결과

기호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	비고
1	민주 자유당	전광순	36.04.10	울진읍 읍내리 147-2	전직 면장	울진농고졸	공무원36년 울진라이온스 회장	13,674 (35.92)	당선
2	민주당	박상인	38.01.25	평해읍 월성리 566	전주우석대 강사	전주우석 대학원졸	울진태권도협 회장	6,059 (15.91)	
3	무소속	이상화	32.03.10	평해읍 삼달리 597	부산대 법대졸	부산대 법대졸	영천시부시장	8,159 (21.43)	
4	무소속	장학중	35.09.24	울진읍 읍내리 472	동국대 법대중퇴	동국대 법대중퇴	울진군부군수 금릉군부군수	8,202 (21.54)	
5	무소속	정후영	57.01.02	후포면 후포리 산18-1	후포고졸	후포고졸	스페인소재아 빌라수산대표	1,970 (5.1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89> 울진군수 읍면 선거 결과

읍·면	선거 인 수	투 표 수	유효 투표자 수					계	무 효 투 표 수	기 권 수	투 표 율 (%)	유 효 투 표 율 (%)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전광순	박상인	이상화	장학중	정후영					
부재자	1,351	1,299	479	183	195	228	127	1,212	87	52	96.15	93.30
울진읍	8,895	6,785	3,089	349	1,066	1,926	153	6,583	202	2,110	76.28	97.02
평해읍	3,902	3,142	546	1,169	954	209	127	3,005	137	760	80.52	95.64
북면	6,243	4,759	1,874	612	619	1,365	170	4,640	119	1,484	76.23	97.50
서면	2,106	1,760	1,082	129	149	253	71	1,684	76	346	83.57	95.68
근남면	3,412	2,703	1,013	188	428	874	99	2,602	101	709	79.22	96.26
원남면	3,162	2,542	1,131	208	384	562	120	2,405	137	620	80.39	94.61
기성면	3,660	2,968	936	568	678	469	136	2,787	181	692	81.09	93.90
온정면	2,764	2,283	423	385	896	343	134	2,181	102	481	82.60	95.53
죽변면	6,586	4,955	2,146	445	742	1,319	151	4,803	152	1,631	75.24	96.93
후포면	7,945	6,330	955	1,822	2,048	653	681	6,159	171	1,615	79.67	97.30
총 계	50,026	39,530	13,674	6,059	8,159	8,202	1,970	38,064	1,466	10,496	79.02	96.2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전광순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받음으로써 얻은 유리한 조직력, ② 장기간 군내 대부분 읍·면의 읍·면장을 거치며 쌓

은 경험과 교분, ③ 울진 북부지역에서 대성임을 자랑하는 울진군 내 담양전씨, 신안주씨, 경주최씨 등 씨족의 결집력을 들 수 있다.

<표 90> 경상북도지사 선거 울진군 투표 결과

기 호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	비고
1	민주 자유당	이의근	38.11.07	경산시 옥산동 884-1 우방APT 102/1501	정치인	영남대졸	경상북도지사 청와대행정수석 비서관	541,535 (37.9)	당선
2	자유민주 연합	박준홍	47.01.26	구미시 신평동 156-4	정치인	경희대졸	무임소장관 정무조정실장 대한축구협회 회장	395,496 (27.7)	
3	무소속	이판석	34.01.17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196	무	서울대 대학원졸	경상북도지사 농촌진흥청장	489,999 (34.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경북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울진군은 3개의 선거구에서 9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제1선거구인 울진읍·북면·죽변면은 총 유권자 22,303명 가운데 17,06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6.51%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민주자유당의 주기돈 후보가 6,91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인 서면·근남면·원남면·기성면은 총유권자 12,733명 가운데 10,35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1.28%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민주자유당의 정재화 후보가 4,786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3선거구인 평해읍·온정면·후포면은 총 유권자 14,990명 가운데 12,12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0.9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민주자유당의 김용수 후보가 4,19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도의원 선거 울진군 선거 결과는 <표 91>~<표 94>와 같다.

<표 91> 경상북도의원 선거 결과

선거 구명	기 호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제 1 선 거 구	1	민주 자유당	주기돈	35.0 5.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18-11	상업	강릉 사범학교졸	경상북도의회의원 새마을운동울진군 지회장	6,914 (42.1)	당선
	2	민주당	박기호	43.02.23	울진군 북면 소 곡리 96	농업	울진농고졸	울진군농민회장 전농경북연맹부의장	4,240 (25.8)	
	3	무소속	주광진	51.09.27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00	상업	울진농고졸	울진청년회의소회장	5,280 (32.1)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제 2 선거구	1	민주자유당	정재화	33.12.20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022	농업	후포고졸	경상북도의회의원 농촌지도자울진군 연합회장	4,786 (49.3)	당선
	2	무소속	박상백	60.03.15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31	상업	후포고졸	민중당울진군지구당 부위원장	1,579 (16.3)	
	3	무소속	장년수	36.01.12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4-5	농업	국민대 법대중퇴	민정당울진군사무국장 울진군의료보험조합장	3,340 (34.4)	
제 3 선거구	1	민주자유당	김용수	40.04.29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07-6	상업	경희대졸	경상북도의회의원 대구·경북ROTC 동문회장	4,191 (36.1)	당선
	2	무소속	권겸시	41.02.10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581	무	후포고졸	민정당울진군부위원장 후포라이온스회장	4,053	
	3	무소속	김용수	53.12.25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87-1	수산업	후포고졸	경북태권도협회이사 후포JC회장	3,362 (29.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92> 울진군 제1선거구 선거 결과

투표 구명	선거 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	유효 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계				
			주기돈 (朱起暻)	박기호 (朴基浩)	주광진 (朱光鎭)					
부재자	6,586	4,960	1,787	1,436	1,548	4,771	189	1,626	95.68	94.40
울진읍	579	554	249	109	165	523	31	25	76.30	96.12
북 면	8,895	6,787	3,000	1,106	2,438	6,544	243	2,108	76.31	96.47
죽변면	6,243	4,764	1,878	1,589	1,129	4,596	168	1,479	75.31	96.16
총 계	22,303	17,065	6,914	4,240	5,280	16,434	631	5,238	76.51	96.3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93> 울진군 제2선거구 선거 결과

투표 구명	선거 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	유효 투 표 율 (%)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계				
			정재화 (鄭在和)	박상백 (朴相伯)	장년수 (張年壽)					
부재자	393	375	164	69	108	341	34	18	95.42	90.93
서 면	2,106	1,759	1,086	131	444	1,661	98	347	83.52	94.43
근남면	3,412	2,706	1,045	251	1,278	2,574	132	706	79.31	95.12
원남면	3,162	2,541	1,475	211	697	2,383	158	621	80.36	93.78
기성면	3,660	2,967	1,015	916	813	2,744	223	693	81.07	92.48
총 계	12,733	10,350	4,786	1,579	3,340	9,705	645	2,383	81.28	93.7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94> 울진군 제3선거구 선거 결과

투표 구명	선거 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수				무 효 투 표 수	기 권 수	투 표 율 (%)	유효 투 표 율 (%)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계				
			김용수 (金容守)	권겸시 (權兼市)	김용수 (金容壽)					
부재자	379	370	144	86	116	346	24	9	97.63	93.51
평해읍	3,902	3,142	977	714	1,268	2,959	183	760	80.52	94.18
온정면	2,764	2,283	534	451	1,178	2,163	120	481	82.60	94.74
후포면	7,945	6,334	2,536	2,802	800	6,138	196	1,611	79.72	96.91
총 계	14,990	12,129	4,191	4,053	3,362	11,606	523	2,861	80.91	95.6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주기돈 의원은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정재화 의원은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또한, 김용수 의원은 농수산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의장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의원 선거는 총 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9 :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군 소재지인 울진읍의 장덕열 후보는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평해읍의 김기현 후보가 ‘호별 방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가 되어 1995년 8월 24일 1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벌금 900,000원으로 감액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2대 울진군 의회 의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1997년 1월 6일까지의 제1기 의장에 김선이 의원, 부의장에 황대운 의원이 각 선출되었다. 1997년 1월 7일부터 임기 말까지의 2기 의장에는 이성우 의원, 부의장에는 김기현 의원이 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1996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서면의 이규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사건[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이 확정됨으로써 이규선 의원은 의원 자격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0월 29일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방진수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주요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임기 내 정기회 4회와 임시회 30회를 개최하여 총 260일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6건의 조례와 1996년 예산안을 포함한 25건의 예산 및 결산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산포, 직산] 건의문’ 채택 등,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35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군의원 선거구별 선거 결과는 <표 95>와 같다.

<표 95> 울진군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명	기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울진읍		장덕열	44.08.20	울진읍 읍내리 299-1	상업	한양대졸	울진청년회의소 8대회장 울진군의회의장	무투표	당선
평해읍	1	김기현	46.09.06	평해읍 평해리 878-1	상업	독학	울진경찰서청소년 선도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청소년선도	1,653	당선
	2	박해경	41.01.9	평해읍 평해리 555	상업	해아농고졸	평해자율방범위원장 역임 평해청년회장	395	
	3	이수진	39.05.07	평해읍 평해리 929-2	기타	후포고졸	울진군의회의원	1,024	

선거구명	기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북면	1	장덕중	49.02.18	북면 신화리 50	농업	울진중고졸	북면새마을협의회회장	1,223	
	2	엄기봉	34.11.08	북면 부구리 165	농업	강원대졸	지방공무원32년	838	
	3	김영소	37.12.28	북면 부구리 167-1	기타	울진농고졸	재단법인 동영장학회 이사	1,239	
	4	임동술	49.05.08	북면 부구리 174-3	건설업	독학	화랑무예합기도경북 회장 한국고전무용중앙 경북회장	1,436	당선
서면	1	박용수	39.04.03	서면 하원리 160-3	농업	울진중졸	울진중삼근분교육성 회장 서면단위농협장	443	
	2	이규선	36.10.12	서면 삼근리 396	농업	동국대 3년중퇴	서면장, 근남면장, 평해읍장 울진군의회의원	1,275	당선
근남면	1	남중극	38.12.20	근남면 노음리 325-15	상업	울진중졸	영덕지청청소년 선도위원 근남면행정홍보위원	650	
	2	전태술	35.11.25	근남면 노음리 324-36	농업	울진농고졸	공무원32년	795	
	3	황대운	46.09.21	근남면 수산리 537	기타	울진중졸	울진군의회의원	1,237	당선
원남면	1	장상용	36.03.03	원남면 오산리 1006	농업	울진농고졸	공직경력31년5개월 원남.울진읍장5년	1,084	당선
	2	남중수	43.10.11	원남면 매화리 1185-1	농업	울진중졸	자유총연맹울진사무국장	523	
	3	황화섭	47.06.26	원남면 매화리 1165-13	건설업	울진농고졸	매화중고등학교교육성 회장	895	
기성면	1	임원섭	43.02.06	기성면 망양리 492	수산업	후포고졸	울진관광대표이사 후포수협이사(4대)	977	
	2	김선이	41.02.13	기성면 사동리 224	농업	평해중졸	울진군의회부의장	1,118	당선
	3	임효문	39.11.28	기성면 척산리 206-5	상업	후포고졸	기성농협감사(3년)	791	
온정면	1	이봉래	39.05.05	온정면 소태리 940-1	상업	영남대졸	교사20년	682	
	2	현경원	46.03.13	온정면 소태리 623-1	기타	영덕농고졸	온정면산업계장 (공무원20년)	621	
	3	정일순	63.07.19	온정면 소태리 216	농업	순신고졸	온정면청년회 총무이사	934	당선

선거구명	기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죽변면	1	이성우	53.03.29	죽변면 죽변리 36-8	수산업	울진농고졸	청년회장 초대죽변면방법대장	2,418	당선
	2	주진용	40.01.16	죽변면 죽변리 311	상업	울진농고졸	대구검찰영덕지청선 도위원 바르게살기울진부위 원장	1,903	
	3	최금용	35.12.26	죽변면 후정리 390	건설업	통영수산고졸	국가공무원10년,수산 업15년	613	
후포면	1	지석수	52.12.02	후포면 삼율리 349	건설업	독학	민자당울진후포면 협의회장 후포국체육진흥회장 역임	1,494	
	2	방유봉	54.07.20	후포면 후포리 581-5	상업	후포고졸	후포동부국교 동창회장역임 후포동부국교총 동창회고문	2,217	당선
	3	김형기	37.08.15	후포면 삼율리 341-16	기타	경희대중퇴	수산업협동조합 전무.감사	914	
	4	송재원	54.08.10	후포면 삼율리 75	회사원	경북공전졸	후포면청년회의소회장 동양화재보험 후포주재소장	1,67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치러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선거는 다음 해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자, 현 정권이 성과로 내세우는 5·6공화국 정권에 대한 과거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주체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다. 선거의 문제점으로는 TK 정서 등으로 대변되는 지역 거론과 색깔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 등의 문제였다.

4·11 총선을 분석하면, 6·27 지방자치 선거의 패배로 인하여 내림세를 보였던 신한국당이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박찬중 의원을 끌어들이므로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의 자민련 공세를 막아내어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비하여 자민련은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 영향력의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기존의 충청권 장악 이외에 대구에서만 우세하며 안정 기반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국민회의 역시 어느 정도의 선전을 기대하였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국민회의와 분리된 민주당 또한 참패하였다.

4·11 총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① 63.9%라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1995년 6월 27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보다 약 5%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의 60%에 해당하는 20~30대의 과반수가 선거에 불참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현역 의원의 44.6%에 해당하는 113명이 교체되었으며, 이는 14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33.7%의 교체율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다. 특히 이러한 광범위한 세대교체는 개혁적 측면보다 보수적 측면의 세대교체라 볼 수 있다. ③ 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자, 6·27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을 가져다준 수도권이 이번에는 여당인 신한국당에 기대하지 않은 압승을 안겨주었다. 즉, 서울에서 신한국당은 47석 중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27석을 확보했지만, 국민회의는 1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또한, 중진위원의 대거 탈락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한 원인으로는 신한국당이 야당과 비교해 참신한 이미지를 지닌 후보자를 공천한 것과 기성 정치인의 유권자에 대한 식상한 어필, 그리고 박정희를 지지하던 이들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④ 지역할거 구도가 재연되었다. 그 예로, 신한국당은 국민회의의 아성인 호남에서 전북 군산 을의 강현욱 후보가, 자민련 아성인 충남에서 청양군·홍성군의 이완구 후보가 유일하게 전북과 충남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광주와 대전 및 전남에서는 전멸하였다. 국민회의 역시 8개의 시·도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제15대 총선 당시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는 다음 <표 96> 및 <표 97>과 같다.

<표 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국·경북·울진군 선거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31,488,294 (792,363)	19,653,073	469,726	20,122,799	11,365,495	63.9	97.7
경북	1,946,499	1,352,267	43,683	1,395,950	550,549	71.7	96.9
영덕·봉화·울진군	105,681	77,974	2,394	80,368	25,313	76.0	97.0
울진군	50,426	37,137	1,115	38,252	12,174	75.9	97.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97>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정당별 당선자와 득표율

정당 단체	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계	지역구	전국구	계		
신한국당	253	46	299	121	18	139	6,783,730	34.5
새정치국민회의	230	46	276	66	13	79	4,971,961	25.3
통합민주당	225	28	253	9	6	15	2,207,695	11.2
자유민주연합	219	35	254	41	9	50	3,178,474	16.2

정당 단체	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계	지역구	전국구	계		
대한민주당	6	-	6	-	-	-	3,114	0.02
무당파국민연합	56	6	62	-	-	-	177,050	0.90
기타	6	-	6	-	-	-	2,614	-
무 소 속	394	-	394	16	-	16	2,328,785	11.8
계	1,389	161	1,550	253	46	299	19,653,073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이 선거에서 신한국당의 김광원, 새정치국민회의 조영환, 통합민주당 김종복, 자유민주연합 이학원, 무당파국민연합 김중권, 민주당 장소택, 무소속 강동호, 강신조, 오한구, 윤영호, 이동일이 무소속 출마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다음 <표 98> 및 <표 99>와 같다.

<표 98>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별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합계
군별					
신한국당	김광원	3,003	2,173	16,439	21,615
새정치국민회의	조영환	218	310	867	1,395
통합민주당	김종복	270	368	685	1,323
자유민주연합	이학원	631	993	2,429	4,053
무당파국민연합	김중권	1,347	1,085	13,292	15,724
무소속	강동호	1,023	7,060	178	8,261
무소속	강신조	446	6,983	529	7,958
무소속	오한구	1,322	4,818	956	7,096
무소속	윤영호	5,949	2,173	310	8,432
무소속	이동일	62	105	204	371
무소속	장소택	210	288	1,248	1,746
합 계	14,481	26,356	37,137	77,97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99>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소속 정당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신한국당	김광원 (金光元)	40.12.1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57-5	정당인	영남대 환경대학원졸	제10회행정고등 고시합격 금릉군수	21,615	당선
새정치 국민회의	조영환 (趙榮煥)	58.07.02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05	정당인	하바드 대학원졸	계명대강사 부정부패추방 운동본부실장	1,395	
통합 민주당	김종복 (金鐘福)	52.09.04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67-3	정당인	매화중졸	학교법인 보문학원상무이사 개혁신당울진군 위원장	1,323	
자유 민주연합	이학원 (李學源)	32.06.27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소라APT	현국회 의원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졸	경북울진경찰서장 자민련국회의원	4,053	
무당파 국민연합	김중권 (金重權)	39.11.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96-38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졸	사법고시합격 서울고법판사	15,724	
무소속	강동호 (康東鎬)	44.02.12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40-1	언론 단체장	경희대대학원 정치학과졸	민정당인권옹호 분과위원장	8,261	
무소속	강신조 (姜信祚)	35.01.04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삼영APT	국회 의원	영남대 경영대학원졸	한국조폐공사사장 동양투자신탁(주) 사장	7,958	
무소속	오한구 (吳漢九)	34.06.10	봉화군 춘양면 소로1리 653-1	무직	서울대 상과대학졸	제11,12,13대국회 의원 국회경제과학내무 위원장	7,096	
무소속	윤영호 (尹英鎬)	40.03.01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150 대일주택 가-205	무직	연세대 경영대학원졸	예비역육군소장 현대학민국ROTC 중앙회총장	8,432	
무소속	이동일 (李東一)	41.10.2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70-6	사업	동국대 문리대학졸	미주한인방송 논설위원	371	
무소속	장소택 (張蘇宅)	34.05.01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41 성류APT	무직	국민산업학교 농영학과졸	대구경북정치학회 특별회원 7,10,11,13,14대 국선출마	1,74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당선자인 김광원 의원은 금품 살포를 이유로 새정치국민회의 측이 신청한 재정 신청이 대구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부심판에 회부되었으며, 안동지원에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1998년 6월에 항소심에서 벌금 800,000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김광원 의원은 1998년 전반기,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었으며 1998년 8월 이후부터 임기 만료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활동으로는 1996년 울진 기성 비행장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98년과 99년, 국정감사 및 예결위 대정부 질의에서 ‘울진 원전 어민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

다. 99년 추경 예결위 대정부 질의에서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의 현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출향 인사로는 서면[현 금강송면] 출신의 박승국 의원이 대구 북갑의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8절 제6공화국(김대중 정부)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정 이후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실시된 선거로, 그동안 다져 놓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또한, IMF 관리체제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는 경제 불황에 허덕이던 국민에게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선거는 그 전의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였다.

신한국당은 1997년 7월 21일,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하여 이회창 대표를 후보자로 뽑았으나, 경선의 공정성과 금품 살포 시비 등을 둘러싼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계속된 반발과 비협조가 이어졌다. 특히 2위로 낙선한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당 체질 개혁론을 내세우며 1997년 9월 8일 경기도지사직 사퇴를 선언하고 9월 13일에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였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법대로’라는 대쪽 이미지로 신망을 받았으나, 두 아들의 병역문제로 인하여 흥역을 치렀다.

해방 이후 50여 년의 우리 정치사에서 끝내 이루지 못한 과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와 ‘연립 공동정권’이었다. 과거, 1995년도에 자유당에 대항하여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 간에 야권 단일후보 협상이 처음 시도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그 이후에도 야권 단일후보 노력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두 야당이 연합하여 이루어 내었으며,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표를 단일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제15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접전을 이뤘고, 50년 동안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투표에 있어서 총선거인 수 32,290,416명 가운데 26,042,633명이 참여하였으며, 국내의 경제적 여건 등의 영향으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부 예측에도 불구하고 80.7%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중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10,326,275[40.3%]를 얻어 차점자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9,935,718표[38.7%]를 390,557표의 차이로 앞서며 당선되었다. 3위는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이며 4,925,591[19.2%]표를 획득하였다.